

# 완성차, 반도체 쇼크 직격탄... 국내 34% 해외 17% 판매 뚝

조업일수 축소·반도체 수급난  
르노삼성 제외 전 업체 판매 감소  
한국지엠, 전년비 판매량 반토막



국내 완성차 업계 로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반도체 수급난으로 글로벌 판매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4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시장에 전년 동기 대비 33.7% 감소한 9만 1790대, 해외시장에 17.3% 감소한 44만 7446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르노삼성을 제외한 전 업체가 20~60%대 판매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한국지엠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반토막났다.

현대차는 22.3% 감소한 28만 1196

대, 기아는 14.1% 감소한 22만 3593대, 한국지엠은 66.1% 감소한 1만 3750대, 쌍용차는 39.5% 감소한 595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다만 르노삼성은 지난해 10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증가한 1만 4747대 판매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 28만 1196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는데 그쳤

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3% 판매 감소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9월 국내시장에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한 4만 3857대, 해외시장에 19.4% 감소한 23만 7339대를 판매했다.

기아 역시 글로벌 판매량이 감소세를 기록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3만 5801대, 해외 18만 7792대 등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한 22만 3593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국내 30.1% 감소, 해외는 10.1% 감소한 수치다.

한국지엠은 반도체칩 부족으로 9월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66.1% 감소했다. 한국지엠은 9월 국내외시장에 1만 3750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내수는 36.5% 감소한 3872대, 수출은 71.3% 감소한 9878대였다. 한국지엠은 반도체칩 부족에 따라 지난달 부평1공장과 2공장

을 절반만 가동했다.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는 1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

르노삼성은 XM3의 유럽수출 호조와 기저효과로 9월 전년 동기 대비 99.7% 증가한 1만 4747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내수 판매는 25.5% 감소한 4401대로 나타났다. 수출은 612.5% 늘어난 1만 346대로 크게 증가했다.

9월 전체 판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차량은 XM3이다. 내수와 수출차량을 더해 총 1만 237대가 판매됐다. 세계적인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XM3 수출차량(수출명 르노 아르카나)은 유럽 시장에서의 꾸준한 인기와 르노 그룹의 부품 우선 공급 정책에 힘입어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 역시 부품수급 차질로 직격탄

을 맞았다. 쌍용차는 9월 국내외시장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5% 감소한 5950대를 판매했다.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와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제약이 원인이다. 내수판매는 53.0% 감소한 3859대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28.6% 증가한 2091대를 기록했다. 쌍용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적체 해소를 위해 총력 생산을 진행하고 있으나, 9000여대에 이르는 출고 적체가 발생한 상황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판매량 감소는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 될 경우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 협력 업체도 위기가 확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3분기도 잘 달리는 테슬라... 판매량 '썰렁'

3분기 판매량 24만 1300대  
매출의 96%, 모델3·모델Y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난 등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가는데 성공했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3분기에 24만 1300대를 판매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인 22만 3677대를 넘어선 것, 2분기(20만 1250대)보다도 20% 가량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모델3와 모델Y가 매출의 96%를 차지하며 주력 모델로 거듭났다. 보급형 세단과 SUV가 테슬라 전기차 주요 세그먼트로 자리잡은 셈.

이들 모델은 미국 프리몬트 공장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 중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모델3.

/테슬라 코리아

특히 3분기 반도체 부족으로 완성차 업체 대부분이 실적 하락을 겪은 상황, 테슬라는 실적을 높이면서 생산 안정성과 인기를 인정받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4분기에도 실

적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 물량이 반도체 공급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인데다가,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 백신 안전성 검증 나선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자 가진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공유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실제 임상 근거(RWE) 기반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제품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10월 1일 건보공단 여의도 스마트워킹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로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 연계해 코로나19 등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하고, 의료제품 빅데이터를 구축해 안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국산 백신 개발자에게 분석데이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식약처-질병청-건보공단은 허가정보(식약처), 백신접종-이상반응 정보(질병청), 급여 청구 정보(건보공단) 등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연계해 국내 실제 임상자료를 근거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의료제품의 개발, 허가, 생산·유통, 급여, 이상 반응 정보를 의료제품 전주기 빅데이터로 구축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개 기관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비교임상으로 개발 중인 국내 백신의 효과와 임상부와 같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석 데이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품의 품질·안전성·효과 등을 종합 분석해 약가 산정에 반영하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을 포함하여 의료제품을 실제 사용하면서 생산된 자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근거"라며, "오늘 간담회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식의약 안전을 위한 인식 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질병청 차장은 "질병청은 식약처, 건보공단과 데이터 협력으로 보다 안전한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혁신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범정부적 코로나19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뉴딜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관련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 투자자 유치 난항... P2P 업계 '이중고'

사실상 핀테크 플랫폼, P2P투자 중단  
신규 개인·기관 투자자 유치 제동

P2P(개인 간 거래)업계가 핀테크 플랫폼, 기관 투자 이슈에 발이 묶여 이중고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 핀크, 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등 사실상 모든 핀테크 플랫폼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P2P 투자 서비스를 '광고 행위'가 아닌 '중개 행위'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창구가 가로막히게 되자 업계는 자사 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영업을 이어가는 한편, 핀테크 플랫폼에 광고를 띄울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신규 개인 투자자 유입과 더불어 기관 투자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업계는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 당시 기관 투자에 관한 항목이 명시됨에 따라 기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저축은행 등 기관을 투자자로 유치했으나 지난 6월 사모펀드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에서는 금전 대여 방법으로 운용되는 펀드는 P2P(개인 간 거래)나 대부업자와 연계한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온투업법에는 기관 투자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금융업법에서 이를 가로막은 셈이다. 사모펀드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온투업법에서도 아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온투업법에서 기관 투자를 명시한 35조 내용 일부를 유권해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35조 3항에서 '여신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이 무엇인지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P2P업계는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관 투자 활성화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는 1만원 단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반면 대출은 단위 자체가 다른 만큼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관 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 수요 만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션펀딩, 브이핀테크, 데일리펀딩, 론포인트 등 4개사가 온투업법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32곳의 온투업체가 등록을 완료했다.

/권소현 기자 think@